

## 👉 함께 푸는 미스터리 <2> 해답

### 푸른공원 아파트의 미스터리

박춘삼씨와 이소라씨는 김주식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그가 이들의 불륜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주식씨가 검찰에 출두하

『그러나 아파트에는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또 이소라씨도 밖으로부터 잠근 침실에 갇혀 있었구요. 더구나 박춘삼씨를 포함하여 아무도 아파트안에는 없었거든요?』

『박춘삼씨는 이소라씨를 침실에 넣고 잠근 뒤 바로 위층의 그의 아파트로 올라갔고 이소라씨는 침실에서 경찰에 전화를 건 거야!』

이렇게 설명한 최교수는 이경감에게 따라오라고 눈짓했다. 그는 공중

스 바닥에는 피문은 아령이 놓여 있었다. 최교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박춘삼씨는 시체를 그 자리에 남겨 두었지. 우리가 이 아파트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테라스에서 몸을 내민 것은 김주식씨가 아니라 박춘삼씨였어. 이소라씨와 박춘삼씨가 꾸민대로 경찰관들이 아파트 문을 부수던 순간 이소라씨는 전화로 박춘삼씨에게 신호를 보낸 거야. 박춘삼씨는 잠깐 테라스에서 사라진 다음 김주식씨의 사체를 내던졌던 것이라네. 그런 다음 테라스를 닫고 모든 범죄의 흔적을 없애버린 것이야』

최교수는 숨을 돌린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아래쪽에서 우리가 16층의 테라스를 보고 있으면서 김주식씨가 자기 아파트 테라스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었다네. 그러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건물에는 13층이 없다는 것일세, 당초 외국인용으로 지은 아파트라 처음부터 그들이 싫어하는 13층은 없었어. 그래서 테라스에 나와 있던 사람은 17층의 박춘삼이었어, 이경감! 이것이 김주식씨 살인사건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일세.』

몇달 뒤 박춘삼과 이소라는 김주식 살인범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 건물에는 13층이 없다는 것일세, 당초 외  
국인용으로 지은 아파트라 그들이 싫어하는 13  
층은 없었어, 그래서 테라스에 나와 있던 사람  
은 17층의 박춘삼이었어, 이것이 김주식씨 살  
인사건을 밝히는데 필요한 증거일세』

라고 소환되었을 때 그 기회가 온 것이다. 그가 「자살」했다면 그것은 심한 우울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교수의 말에 이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저질렀지요?』라고 물었다.

『김주식씨는 그의 몸이 테라스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살해되었어!』 최교수의 말은 단호했으나 이경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으로 손짓하면서 『바로 우리가 찾을 증거가 있는 곳이라네』라고 말했다. 얼마 뒤 수색영장을 손에 든 최교수와 이경감은 바로 위층의 박춘삼씨 아파트에서 있었다.

『김주식씨는 바로 이곳으로 유인되었어. 그리고 박춘삼은 저 아령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던 것이네. 거리로 떨어진 것은 머리의 타격을 은폐하려던 것이라네.』

최교수가 말하면서 손짓하는 테라